

고후조(헤이안 시대 국보)

헤이안 시대 초기(794~929년)에 지어진 이 커다란 창고는 불교의 보물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좌우 2개의 독립된 창고를 하나의 지붕으로 덮는 나라비구라(雙倉, 쌍창) 양식의 건물로, 보물을 넣고 꺼내는 것은 2개의 창고 사이 공간에 있는 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고후조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나라 도다이지 절(東大寺)에 있는 쇼소인과 마찬가지로 건물 내부에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이 높은 고상식으로 지어졌다는 점입니다.